

광주 동구 책정원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026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포스터

/광주 동구청 제공

책정원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림책·체험활동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광주 동구는 책정원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14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국 도서관과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독서 경험 확대와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이다.

장애인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책정원도서관은 관내 복지시설인 행복재활원과 협력해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7월까지 총 11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 강사를 통해 장애 유형과 수준에 적합한 그림책을 활용하여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을 진

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두근거리는 나의 꿈으로의 여행 ▲행복은 늘 가까이 ▲서로 다름을 존중해요 ▲너에게 꽃처럼 예쁜 말을 주고 싶어 ▲감정의 주인은 나 ▲함께라서 더 좋아요 ▲나의 행복찾기 ▲나눔의 기쁨 ▲지구 환경 지킴이 ▲도서관 사서와의 만남 및 음악회 관람 등이

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에

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함께 읽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도서관은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계획이다. 행복재활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과 참여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프로그램 환경도 제공한다.

음악회 관람과 사서와의 만남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구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독서·문화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광산구, 5·18 정신 알리는 시민 안내소 마련

15~19일 안내소 운영·체험행사 진행 5·18 역사적 가치 시민과 함께 공유

광주 광산구가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역사 현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5·18 안내소를 운영한다.

광주송정역은 1980년 5월 당시 시위군중이 집결한 역사 현장이자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의 의지를 전국으로 알리고자 했던 저항의 중심지 중 하나다.

안내소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기념행사 일정, 5·18 사적지 정보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안내소 개소와 더불어 광주송정역 현장에 제30호 5·18 사적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장에는 문화해설사와 자원봉사자가 상주해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지원한다.

안내소는 광주송정역 광장 입구에 설치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광산구는 안내소 운영과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병행한다.

16일에는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도시재생공동체센터, 투계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 협력해 윤상원기념관에서 5·18 역사길 걷기, 추모 행사, 주먹밥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어 16일과 17일까지 같은 장소

에서 '천동마을 하루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먹밥 만들기,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문객들은 광주송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시민들의 저항 정신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역사 현장과 연계된 설명을 통해 공간 자체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문화해설사와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생생한 역사 해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5·18의 가치가 세대를 넘어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현장에는 관련 자료와 안내 콘텐츠도 함께 배치돼 이해도를 높인다. 사적비 설치되는 역사적 장소의 상징

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에 새로운 접근을 더한다. 체험 중심 행사는 역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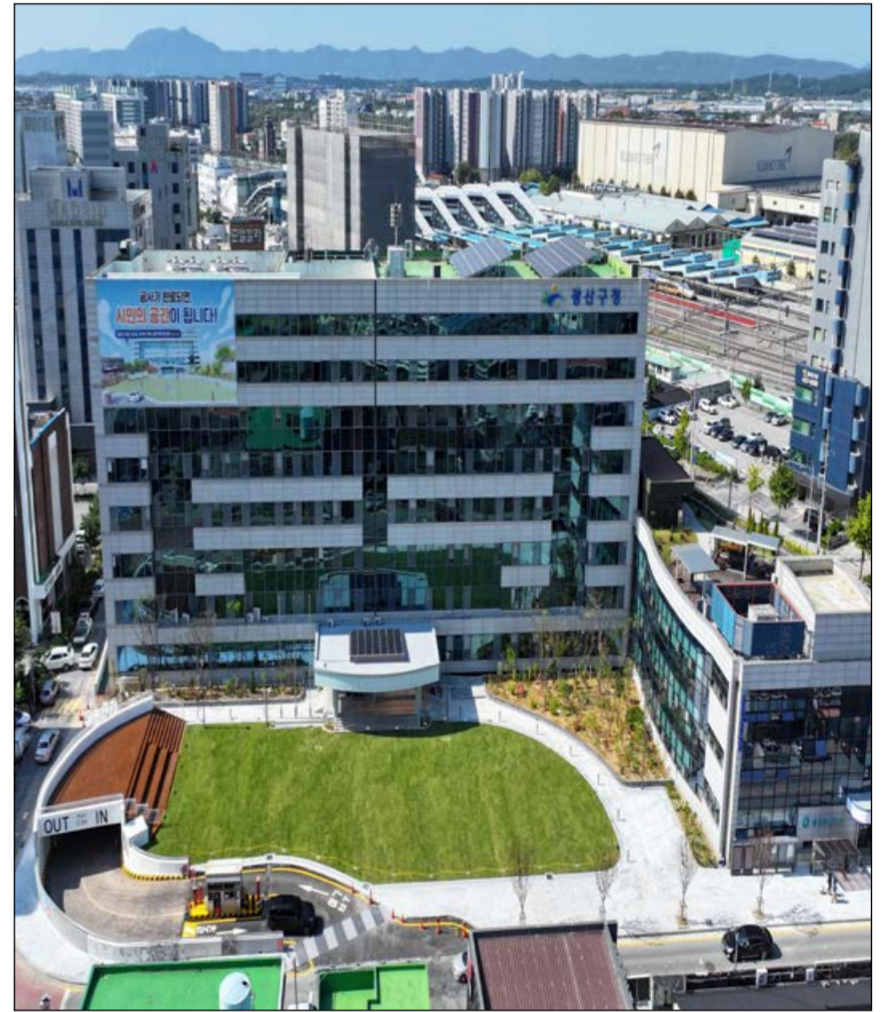
다양한 기관의 협력은 지역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방문객들은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은 광주가 가진 민주화 상징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행사 전반은 기억과 참여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광산구는 향후에도 역사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18 정신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청 전경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